



자신있다

쇼트트랙 최민정, 사상 첫 500m 금 도전 “경쟁자는 나”

자만했나

루지 3연패 도전 獨 로호 ‘마의 9번 코스’ 방심 5위 그쳐

◀지난 7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중 최민정이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루지 황제’로 불리는 독일의 펠릭스 로호가 지난 11일 4차 시기 주행을 마친 뒤 낙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인 최민정(성남시청·20)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00m 경기를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민정은 13일 오후 7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준준결승전에 출격한다. 이어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잇따라 열리는 만큼 한국의 2호 금메달 소식이 이번엔 여자 쇼트트랙에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최민정은 12일 오전 강릉 영동쇼트트랙 경기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 후회 없이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주 종목이 1,000m와 1,500m이지만 500m에도 큰 욕심을 내었다.

명실상부 쇼트트랙 최강국인 한국이 유독 여자 500m는 아직 한 번도 고지에 오르지 못해왔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쇼트트랙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500m에서만큼은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했다.

최민정은 “500m는 워낙 짧은 순간에 승부가 나는 종목이라 변수가 많다”면서도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회 (개최연도)	우승국	선수명
16회 프랑스 알베르빌 (1992)	미국	캐시 터너
17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994)	미국	캐시 터너
18회 일본 나가노 (1998)	캐나다	양니 페로
19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002)	중국	양양 (A)
20회 이탈리아 토리노 (2006)	중국	왕영
21회 캐나다 밴쿠버 (2010)	중국	왕영
22회 러시아 소치 (2014)	중국	리젠러우

최민정은 이날은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쇼트트랙 훈련에 집중했다. 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에서 최민정은 남자 선수들에도 뒤처지지 않는 스피드를 자랑했다. 그만큼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훈련을 지도한 박세우 대표팀 코치는 “멀리서 보면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을 만큼 스피드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며 “스타트 훈련은 진전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드 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정은 마지막 후반 랩 타임이 좋다”며 “외국 선수들과 초반 격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고, 그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팬들에게 ‘나쁜 손’으로 잘 알려진 판커신(중국)에 대비한 작전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반칙을 하겠다고 대놓고 덤비면 방법이 없다”면서도 “오히려 이를 너무 의식하면 레이스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여러 상황에 맞춰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정은 준준결승 4조에 속해 당장 판커신(3조)과의 대결은 피한 상태다.

최민정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며 “상대 선수에 따른 맞춤형 전략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500m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바로 나 자신이다. 500m뿐 아니라 모든 종목이 나의 싸움”이라며 다시금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10시 40분께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과 선수, 기자들은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루지 싱글 경기가 막 끝난 시점이었다.

슬라이딩센터의 트랙 종점에는 ‘루지 황제’ 펠릭스 로호(독일·사진)가 고개를 꼭 숙인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 앞선 상황은 이랬다.

총 4번의 주행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이날 경기의 4번째 주행을 3차 주행까지 순위의 역순으로 시작했다. 1~3차 주행 함께 1위를 기록한 로호는 4차 시기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로호는 21세기 최고의 루지 선수로 불리는 스타다.

그는 태어난 지 20년 205일 만이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루지 역대 최연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기세를 이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싱글, 팀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로호는 이날 밤 평창에서 올림픽 3연패를 눈앞에 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악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9번 커브에서 순식간에 바뀌었다.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로호는 발을 잘못써 9번 커브를 빠져나왔고, 썰

매가 미끄러지면서 날이 앞으로 들어진 채 10번, 11번 커브를 통과했다. 0.001초로 승부를 가리는 루지에서 이는 치명적인 실수다.

관중이 MBC 해설위원은 “9번 커브에서 펠릭스의 그 실수가 너무 컸다”며 “펠릭스가 올림픽 3연패를 앞두고 크게 방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9번 커브는 회전 각도가 10도 안팎이고 속도가 시속 120km에서 100km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 커브를 빠져나오면 직선 주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세하게 좌우로 휘어져 있는 10~12번 커브가 나온다. 9번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면 기록이 늦어지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결국, 루지 황제도 9번 커브의 탓에 걸리고 말았다. 로호의 4차 시기 성적은 19위(48초.109)로, 최종 성적은 5위로 뚝 떨어졌다.

로호는 머리를 쥔 채 괴로워했고, 관중은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으며, 느닷없이 굴러들어온 행운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오스트리아의 데이비드 글라이서는 기세를 돋우며 동료들을 일사단결 폴짝폴짝 뛰었다.

한국은 다른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 스키슬레지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종목은 다



르지만 경기는 루지와 같은 트랙에서 열린다.

남자 스키슬레트 윤성민, 남자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서영우가 홈 이점을 살려 ‘악마의 구간’을 잘 빠져나와 끝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서씨 삼남매’ 평창 스키장 누볐다

한국 모글 개척 누나 서정화
세번째 올림픽서 결선 진출
3~4세 스키 입문 명준·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삼남매’가 설원을 누볐다.

12일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글에서 서명준(26)이 세계인의 스포츠 대추제를 즐겼다.

서명준은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대한체육회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세계인의 축제이자 운동선수들의 꿈인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낀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목표는 금메달”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난 9일 끝난 1차 예선에서 26위에 머무는 등 세계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서명준에게 이번 올림픽은 평생 기억에 남을 무대와 시간이다.

그는 평창 올림픽에 자신의 친누나 서정화(28) 그리고 사촌 동생 서지원(24)과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5명. 이 중 3명이 바로 ‘서씨 삼남매’다.

서정화는 한국 모글의 개척자로 2010



서명준

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올림픽이다. 서지원은 2014 소치 올림픽 대회에서는 1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집안에서 세 명의 국가대표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서정화·서명준의 아버지 서원문(60)씨와 서지원의 아버지 서수문(57)씨가 있다. 두 아버지는 20년가량 취미로 스키를 타왔고, 자연히 아이들도 스키와 친해졌다.



서정화

서명준은 “3살 무렵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스키를 타기 시작했다. ‘스키’ 중 목 역시 부모님과 함께 즐기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스키를 시작한 계기를 말했다.

서지원 역시 “4살부터 스키를 탔다. 스키를 접한 것은 8살 무렵. 아버지의 권유로 선수가 됐다”고 언급했다.

서정화는 지난 11일 열린 여자 2차 예선을 통과해 6위로 1차 결선에 진출했



서지원

다. 이는 우리나라 올림픽 여자 사상 첫 결선 진출이었다. 하지만 1차 결선에서 목 역시 부모님과 함께 즐기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스키를 시작한 계기를 말했다.

성적을 떠나 이들 ‘국가대표 삼남매’에게는 함께라서 더욱 특별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5연패 시동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올림픽 5연패를 향한 발을 옮겼다.

캐나다는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팀을 5-0으로 완파했다.

이 승리로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올림픽 경기 연속 기록을 ‘21’로 늘렸다.

캐나다의 마지막 패배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1998 나가노 대회 결승전에서 나왔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에 1-3으로 패했다.

이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등 4개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는 매년 조별리그 세 경기, 준결승,

결승 등 5경기 승리와 금메달 획득이라는 공식을 이어왔다.

캐나다가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연속 기록을 ‘25’까지 늘리면, 올림픽 연속 제패 기록도 ‘5’로 늘어났다.

캐나다의 5연패를 저지할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북미 맞수’ 미국도 같은 날 A조 1차전에서 핀란드를 3-1로 꺾었다.

미국은 소치 올림픽 이후 2015~2017년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결승에서 캐나다를 꺾고 정상에 오르며 올림픽 실력을 버리고 있다.

같은 A조에 속한 캐나다와 미국은 오는 15일 낮 12시 10분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경기에서 격돌, ‘미리 보는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메달 수여장 평창 올림픽플라자 무료 개방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달 수여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플라자가 무료 개방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2일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고, 매일 밤 메달플라자에서 메달을 수상하는 메달리스트들을 더 많은 관객들이 축하하고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창 올림픽플라자의 무료 티켓을 13일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5시부터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올림픽 플라자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에 위치한 메달플라자에서는 매일 저녁 7시부터 6~7회의 시상식이 열린 예정이다.

시상식에 앞선 오후 6시부터는 강원도가 준비한 삼척이사부무용협회와 평창스노우 합창단 등이 준비한 문화공연과 다양한 공연이 있으며, 시상식 후에는 비투비와 B1A4, 장미여관, 2PM, 레드벨벳 등 다양한 가수가 참여하는 K-POP 공연도 진행된다. 또 겨울밤을 수놓는 드론쇼와 불꽃놀이가 축제의 흥을 더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